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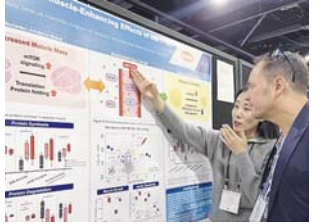


풀무원
식품·가전 융합
사업 다각화
나



Life

비만치료제
경쟁 본격화
자체기술력 주목
L2



환경보호 실천, 녹색금융 확산... 나눔·연대로 희망이 ‘쑥쑥’



키움증권

키움증권은 환경보호, 사회공헌, 지속가능금융을 3대 축으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본질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6월 출범한 예강희망키움재단도 사회적 책임을 위해 힘을 더한다. 올해 공동으로 ‘키움과 밝음’ 사업을 이어가는 등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동행을 시작했다. 우리 사회는 빠른 발전 속에서도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으로 꿈을 접는 아동·청소년이 적지 않다. 특히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 키움증권과 예강희망키움재단이 나눔으로 희망을 키우고,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유다.

◆실천은 지금, 바로 여기서부터...사내문화 형성 집중

키움증권은 ‘생활 속 ESG’를 모토로 임직원과 고객이 함께 참여하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걸음 기부 캠페인인 ‘키움과 밝음’은 통해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에 에 기여한다. 지난해 시즌 1에 이어 2025년 시즌2 캠페인에서는 임직원과 시민 7265명이 참여해 2억4000만 보를 달성했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3300여 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으며, 약 2만2000kg의 탄소저감 효과를 창출한다.

생활 곳곳에서 실천하는 실속 있는 환경보호도 주목된다. 여의도 본사 내 사내카페에서는 리유저블 컵만 사용 가능하다.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사내 명함과 다이어리 역시 재생용지와 친환경 소재로 제작했다. 점심시간에도 전등을 끄는 등 절약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출범한 사내 사회봉사단 ‘키움과 나눔’은 2025년까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임직원 참여형 봉사 활동이다. 장애인 어르신 급식 봉사, 발달장애인 나들이 지원 등 지속 가능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 혈액 부족 시기에는 2년 연속 헌혈 캠페인 ‘키움과 채움’을 진행하기도 했다.

키움증권은 “‘생활 속 ESG 실천’을 기업 문화로 정착시키며, 환경 보호·사회적 약자 지원·윤리적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함께 키우는 사회,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ESG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약계층부터 공공안전까지... 다양한 사회 나눔

사회배려계층에 대한 관심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단순한 일회성 후원이 아니라, 도움



(왼쪽부터)김동수 하남안과 대표원장, 김도은 소방가족희망나눔 이사, 박상조 예강희망키움재단 대표이사, 이진호 소방청 기획조정관, 양성욱 키움증권 커뮤니케이션본부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시력 개선 기부금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키움증권



생활 속 ESG 모토로 전 임직원 참여 걸음기부 캠페인으로 탄소저감 효과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환경보호 활동

도움 필요한 곳에 지속·체계적 지원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뛰는 마라톤 소방공무원 200명 수술비 3억 기부

지난 6월 ‘예강희망키움재단’ 출범 김익래 전 회장 사회회원 공약 실현

ESG 채권 발행 등 지속가능금융 구축 사회초년생 전용 ELB 출시, 상생 앞장



▲지난 1월 키움증권의 ‘사회초년생 전용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가 증권사 최초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TPE타워 4층 키움증권 사내 카페, 6개 분야 기부가 가능한 ‘키움과 나눔’ 키오스크를 비치하고, 일회용품 없는 리유저블컵 전용 카페로 운영된다.

이 필요한 곳에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키움증권이 추구하는 ‘진짜 나눔’의 방향이다.

키움증권은 ‘내일을 위한 키움과 나눔’ 캠페인을 통해 장애인, 새터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 2024년엔 모자 간이식 환자 치료비로 3억원, 2025년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는 성금 3억원을 전달하고, 현장 소방대원 지원에도 나섰다.

사회적 통합의 의미를 담은 ‘키움런(Kiwoom Run)’ 마라톤 대회도 주목받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통합형 스포츠 문화를 만들며, 차별 없는 참여와 공감의 장을 열었다. 또 유기동물 입양가정을 응원하는 ‘끝까지 키움’ 캠페인을 통해 책임 있는 반려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탰다.

청년 세대를 향한 관심도 각별하다. 한국 장학재단과 협력해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50명에게 장학금 1억원을 지원했다. 더불어 ‘어른까지 열려준비’ 캠페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도 지원하면서 다양한 소외계층을 챙겼다. 해당 캠페인은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무신사, 여기어때, 쏘카, 스픽 등 7개 기업과 협력해 준비했다. 키

움증권은 “이는 사회적 약자 청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으로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키움과 밝음’ 프로젝트를 통해 공공안전도 지원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소방관을 응원하고자 3억원의 기부를 통해 소방관 200여명의 수술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예강희망키움재단과 공동으로 사업을 이어갔다. 예강희망키움재단은 지난 6월 다우키움그룹 창업주 김익래 전 회장이 앞서 공약했던 사회회원을 위해 설립한 사회공헌 재단이다. 김 전 회장의 호(號)인 ‘예강’을 따 사회의 사각지대를 찾아 성장의 희망을 전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재단은 600억원대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예강희망키움재단은 “우리사회가 보다 건강하게 성장하고 누구나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나아가 이들이 자립하여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본업을 통한 ‘희망 키움’... 지속가능금융 앞장

키움증권은 금융사의 ESG 역할 중 하나인 ‘지속가능한 자본시장 구축’을 위해 ESG 채권 주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순한 투자 중개를 넘어, 지속가능금융의 생태계를 키워가는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다.

특히 ESG채권 주관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다. 2025년 1호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발행을 공동 주관하며 2000억원 규모의 현대캐피탈 SLB 발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지난해 7월에도 현대캐피탈의 1000억원 규모 SLB를 단독 주관하며 성공적으로 발행을 마무리한 바 있다. SLB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의 한 종류로, 발행사가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추가 프리미엄을 지급하는 구조다.

이러한 사후 검증 매커니즘은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장치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캐피탈 SLB 외에도 BNK캐피탈의 사회적채권, 녹색채권 발행 등을 대표주관했다.

키움증권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인 ‘사회초년생 전용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를 출시했다. 이는 증권사 최초로 ‘상생·협력 금융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이는 단순한 일회성 기부가 아닌, 사회적 자립 기반 마련을 돕는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로 평가된다”며 “수익 창출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녹색금융 확산에 기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2025 한태평양 친선사격대회 폐막...한국 금 6·은 5·동 6
▲류현진 대표팀 발탁 가능성 있을까...“WBC 대비 포괄적으로 준비”
/사진 뉴시스

▲홍명보호, 이동경·백승호 부상으로 배준호·서민우 대체 발탁
▲아이스하키 HL 안양, 고베 원정 3연전 싹쓸이...7연승 질주

▲한중 청소년, 중국서 스포츠 통해 교류...“화합·존중하며 성장”
▲국민체육진흥공단, 28일까지 202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